

월간미술

9 772277 512000
ISSN 1227-3120
7 B
KCI



2014 08

www.monthlyart.com

오래된 장소, 오래된 시간의 기억

독립과 인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 최재은의 개인전 <순환이 지속되는 집(The House that Continuously Circulates)>(6.25~9.21)이 열리는 체코 프라하 국립미술관 성야그리츠수도원은 그야말로 수도원의 아우라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었다. 관람객은 목격하는 프라하 1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에 시끄러운 세상에서 분리된 차분함이 유지되고 있었다. 13세기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1968년부터 국립프라하미술관의 수채화시청으로 운영되고 있다.

최재은의 개인전 <순환이 지속되는 집>은 이 공간의 역사와 분위기 그리고 건축적 구조 등에 맞물려 치밀하게 기획하고 또한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인상울 주고 있었다. 방문 당시 전시를 앞두고 한 점 설치에 몰두하고 있던 작가는 설치된 정면을 최대한 보여주겠다며 기자의 발을 하루 늦추기까지 했다.

그러나 이 전시를 꽤 오래전부터 기록된 것이었다. 최재은은 2008년 이미술포에서 열린 <프라하브러엔던데(ITCA)>에 참여, 이번 전시에 대한 영감을 받고 미터 200×100cm의 일부분 산송이나뭉쳐 화환처럼 수도원 벽면에 붙여두었다. 이러한 조우과정은 작가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<World Underground Project>의 연계선상이었다. 평소에도 오래된 종이를 모으는 것이 취미인 최재은은 막연한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색이 바랜 종이들은 수도원 중광홍 전시장으로 옮겨졌다. 시간의 흐름은 담은 듯 빛바랜 종이에에는 '1955, LUCY' 등의 텍스트를 손글씨로 기록하고 그리고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간 꽃, 잎식 등을 붙여놓았다. <Paper Poem>으로 명명된 이 작업은 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사사를 읽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한다. 비가시적인 시간의 흐름은 최재은의 작가적 개입에 의해 수도원이라는 공간과 어우러져 큰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다. 이번 겨울품인 <Two Anazakya>도 마찬가지. 오래된 종이에 "YOU ARE IN ME I AM IN YOU"를 줄줄이 바다에 갈고 비즈 등으로 장식한 의자와 그렇지 않은 원래의 의자를 마주보게 설치했다. 최재은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정지된 듯 기지럼 전진해 전하고 있다. 싱싱하게 보이었던 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명과 완전히 달라버린 꽃? 무바무리한 <Somebody is there- Nbody is there>도 비로소 그 한 백담에서 읽힐 수 있다.

전시를 주관하는 프라하 국립미술관의 근현대미술부 디렉터 헬레나 무실코바(Helena Musilová)에게 이번 전시에 대해 물었다. 올리츠허 국립현대미술관 비수공미술관에서 열린 <체코 프라하 국립미술관 소장품전>(1.25~4.21)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. 그녀는 최재은의 전시에 대해 "이곳에서 최재은 작가가 전시 작업을 하는 공간을 초청하기는 처음"이라며 "성야그리츠수도원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한국인과 우로프 연의 생각이 혼란된 작품을 선보였다"고 평가했다.

프라하=광석원 수석기자



Choi Jaeun in Prague

The House that Continuously Circulates



(Somebody is there, nobody is there)
oil print 150×100cm 2014

왼쪽 페이지

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<Marifada in the Labyrinth of Time> 대리 석, 광석 85×45×77cm 2014, <Voice Howler & Garden> 종(1946) 화석 2014(이상 image provided by National Gallery in Prague, Courtesy by artist and Kukje Gallery), <Paper poem>(부분) 오래된 종이, 발견된 오브제 2014, <Two Anazakya> 로케인 키사, 비즈, 텍스트가 출력된 종이 31×64×35cm(리자, 각) 2014